

**특허청-농식품부, 케이(K)-푸드 브랜드 보호 정책 강화 시동**

- ‘케이(K)-푸드 위조상품 대응 협의체’...위·모방품 차단을 위한 민·관 협업 본격화

특허청(청장 김완기)과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, 이하 농식품부)는 6월 30일(월), 서울 양재동 에이티(aT)센터에서 ‘2025년 상반기 케이(K)-푸드 위조상품 대응 협의체 회의’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전 세계적인 케이(K)-푸드 인기에 편승하여 해외에서 저가·저품질의 위조상품 유통·판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짐에 따라, 양 부처는 우리 수출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, 케이(K)-푸드의 브랜드 가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, 주요 수출기업* 및 식품산업협회와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.

* CJ제일제당, 대상, 삼양식품, 인삼공사, 빙그레

회의 주요 내용은 △상반기 위조상품 및 상표 무단선점 모니터링 결과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·상담 실적, △하반기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*, △수출업계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등이다.

* ①현지 기관과의 합동 점검, ②소비자 참여 캠페인, ③식품기업과 함께 위조·한류 편승 제품 기획 실태조사, ④지재권 관련 자문·교육·설명회 등의 기업 지원 등

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“케이(K)-브랜드의 위조상품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와 브랜드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.”면서 “특허청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케이(K)-브랜드 위조상품 피해 예방·구제를 강화하겠다.”고 밝혔다.

농식품부 주원철 식품산업정책관은 “케이(K)-푸드 수출은 금년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년 대비 7% 이상의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, 우리 농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외 위조상품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, 애로 상담 및 교육·자문, 지재권 출원·등록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.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농식품수출진흥과	책임자	과 장	강효주	(044-201-2171)
		담당자	사무관	강태원	(044-201-2172)
	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분쟁대응과	책임자	과 장	강윤석	(042-481-5182)
		담당자	주무관	김효진	(042-481-8210)